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지금, 이 순간

정승원 초대전 '차르르, 침범...The moment we call love'...7일까지 예술공간집

일상 속 작고 소중한 행복들 조각, 조각이 모여 작품으로

일상 속 소중한 추억을 그림 속에 담아내는 정승원 작가가 여름을 맞아 청량감이 물씬 느껴지는 신작들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예술공간집은 오는 7일까지 정승원 작가 기획전 '차르르, 침범...The moment we call love'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몇 해 동안 작가가 작업해온 아쿠아리움 시리즈 등과 함께 올해 준비한 특별한 신작 등 총 3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 제목과 같이 작품들은 여름의 시원함과 청량함을 담아낸 사랑스러운 순간을 보여준다.

작가의 여름 시리즈는 2021년 아이와 함께 다녀온 아쿠아리움 장면이 계기가 됐다.

이를 시작으로 작가는 수영장 모습, 강렬한 붉은빛과 푸른빛 모래사장을 표현한 파라디이스 등 여름의 순간들을 꾸준히 그려왔다.

여름 시리즈를 계획하며 작가는 지난 몇 달간 어항을 두고 아이와 함께 물고기를 키웠다. 우파루파, 보리새우, 열대어 등을 기르고 주말엔 아이와 함께 자연을 찾았다.

가족들과 함께 한 여름 휴가의 추억, 물장구치는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 등 특별한 것 없지만 소중한 일상의 조각들이 모여 작품이 됐다.

작품 속에는 이러한 사랑스러운 순간들이 가득하다.

익살스럽고 따뜻하게 표현된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웃음이 절로 피어난다.

작품을 더욱 인상적으로 만드는 것은 '판



'summerhouse #1'



'Swimming Pool Sud Bad'

화' 제작 기법이다. 작가는 주로 실크스크린 작업을 해왔는데, 이번 전시에선 이를 더 극대화한 기법들로 제작한 신작들을 선보인다. 여러 겹 레이어로 찍어낸 실크스크린 기법에 야광물감, 발포물감 등을 더한 결과물은 물론, 이를 더욱 확장시킨 오리지널 작품을 제작해 전시한다.

색색깔 실크스크린의 다채로움과 함께 여러 겹 발포물감이 쌓인 작품은 입체 부조와 같은 느낌을 자아내며 판화의 세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디지털 카메라, 인쇄기법의 다양한 변화와 발전으로 다소 위축됐던 '판화' 장르를 다시금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작가의 독보적 지점이다.

또 페인팅·실크스크린 혼합 회화, 모빌, 자작나무 합판 위 입체 작품 등 판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품 등 작가만의 특별한 세계도 펼쳐진다.

전시 연계 행사도 다채롭다. 오는 6일 작품 시연회와 함께 작가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참가자들은 작품 이야기를 듣고 작가와 함께 실크스크린을 찍어 가져갈 수 있다. 선착순 20명을 사전 신청 받으며 예술공간집(062-233-33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승원 작가는 "그림 속 행복한 순간들이 나의 이야기면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작은 순간들의 총명한 기쁨을 관람객들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SF 연극 연계...인간과 인공지능 관계성 고찰

ACC 7-8월 테마강좌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첫 SF 연극인 '대리된 존엄'과 '거의 인간'은 과학과 인공지능을 큰 축으로 설정해 인간과 비인간의 사회적 공존 및 그 관계성을 고찰해볼 수 있는 공연이다.

ACC는 7-8월 이 두 연극과 연계된 테마강좌 'ACC 공연을 즐기는 새로운 방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오는 9일부터 8월22일까지 문화정보원B4 문화교육실5에서 총 4차례 열린다.

먼저 9일에는 과학적 상상력과 문학적 스토리텔링의 만남을 주제로 이은희(하리하라)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강연에 나선다. 시각기관인 '눈'에 대한 과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눈과 나, 눈과 세상, 본다는 것의 의미 등을 풀이하며 과학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

의 만남으로 만들어진 이번 공연에 대한 이해를 더한다.

11일에는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의 저자 김재인 서강대 교수가 일상생활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스며든 오늘날을 인공지능의 시대로 명명하며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철학적으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8월20일에는 '비인간과 인간의 관계

(가제)'를 주제로 이동신 서울대 교수의 강연이 이어진다. 이 교수는 우리가 오랜 시간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기술, 동물, 사물로 대표되는 비인간 존재들을 도구 혹은 소유의 개념으로 치부하며 '인간'을 중심으로 사고해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8월22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단지 기술일 뿐, 우리 시대 예술가가 기계와 함께 창작하는 방법'을 주제로 오영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함께 '오늘날 창작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최명진 기자

'Life&L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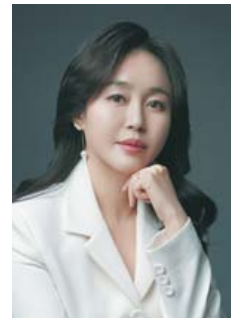
소프라노 윤하나 독창회...16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따뜻한 음색으로 감동을 전하는 소프라노 윤하나(사진)의 독창회가 오는 16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소프라노 윤나는 전남대 예술대학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탈리아 mantova academic 수료, 미국 북텍사스 주립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광신대 음악학 부 조교수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Life&Love'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공연에서는 색채감 있는 연기력과 풍부한 가창력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피아노 김민준, 해설 김현이 함께 한다.

프로그램의 첫 시작은 하이든의 '거칠던 들이 변하여 푸른 초원 되었네'다. 이어 벤자민 브리튼의 '이 집에서' 전곡과 첼리스트 이후성이 협연하는



빌라 로보스의 '브라질 풍의 바흐 5번 - 칸틸레나 아리아'를 들려준다.

가곡 무대도 펼쳐진다. 한용운 시·김주원 곡의 '사랑', 서정주 시·김주원 곡의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 같이'다.

마지막으로 벨리니 오페라곡 '나여 기행복의 옷을 입고 있어...오! 얼마나 많이'와 푸치니 오페라 '도레타의 꿈'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소프라노 윤나는 "시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수준 높고 감동있는 무대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스케치북에 담긴 도시 이야기

'ACC에 반한 스케치'展...오는 7일까지 대나무정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 동구의 소소한 도시 모습을 스케치한 이색 그림전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7일까지 문화정보원 대나무 정원에서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대표 서동환)'과 함께 기획한 'ACC에 반한 스케치'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ACC를 스케치한 그림을 비롯해 광주 동구의 오래된 모습과 변화된 현재의 모습을 그린 그림 등 200여 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작가들은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ACC와 광주 도심 속 문화, 시민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작은 스케치북에 담았다.

'어반스케처스(Urban Sketchers)'는 자신이 살고 있거나 여행하는 도시와 마을을 현장에서 그리는 단체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수 백여 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광주에는 1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2020년 2월에 결성된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은 광주 전역을 누비며 옛 거리와 건물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을 그려낸다.

지역 작가 및 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는 ACC는 올해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 '어반스케처스광주(운영자 서재은)'와 함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명진 기자

후끈한 열기! 시원한 샷~!

이 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파크골프

무료 레슨

전일파크골프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전일상사 2층) 문의 062)368-5779 / 010-4645-5778